

修鍊仙道小說의 虛實

崔 昌 祿

<目 次>

1. 序 論

2. 神仙傳과 修鍊仙道

3. 批判과 諷刺로서의 神仙傳

4. 結 論

1. 序 論

神仙傳의 虛構의 構成은 事實의 記錄과 相補관계에 있다. 실제 人物인 것 같으면서도 실제 人物이 아니고, 神仙可學이면서도 可學이 될 수 없는 修鍊의 이야기로 엮어진 作品들이 修鍊仙道小說이다.¹⁾ 南宮先生은 실제 人物인 것 같으면서 실제 人物이 아니고 修鍊過程은 事實인 것 같으면서 事實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南宮先生傳은 또하나의 南宮斗인 韓無長과 또하나의 權真人인 趙聖가 複合되어 실제 人物이면서 실제 人物이 아닌 南宮斗와 事實이면서 事實이 아닌 修鍊得道の 이야기라는 것이다.

修鍊仙道小說은 入山修道하거나 明師를 만나거나 道書를 傳受받아 得仙하게 된다는 이야기로 되어 있다. 文獻說話나 神仙에 관한 傳記들이 이러한 要件을 갖추지 않고 奇人이거나 異人이었다는 事實만의 記錄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修鍊得道했느냐의 過程에서의 苦難과 克服, 因에 의한 果의 提示라는 構造的 特性은 지닌 神仙小說장르의 한 下位概念이란 뜻이다.

또한 修鍊仙道小說은 神仙可學의 입장에서 쓰여진 小說이라 했다. 그러면 神仙은 可學이 아니라는 입장에서 쓰여진 作品은 神仙이란 虛誕하다는 사실을 들어내거나 神仙可學의 사실을 諷刺하는 경우의 小說이 된다. 이런 뜻으로 보면 修鍊仙道小說의 범주는 상당한 制約이 있게 된다.

文獻說話에서는 海東異蹟의 權真人條가 가장 완벽한 傳記의 類型의 小說

1) 拙稿, 神仙傳과 神仙小說장르의 設定(人文科學研究 第一輯, 大邱大學校 人文研究所, 1982) 참조.

形式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이 權眞人條는 許筠의 作인 南宮先生傳이다. 비록 神仙傳의 범주에는 들어가지나 傳記의 類型의 形式을 갖추지 못하고 異人・奇人 得道者라는 斷片的인 記錄은 小說의 要件을 갖추지 못했다는 뜻이 된다. 李家源校注의 李朝漢文小說選을 보면 許筠의 作으로 南宮先生傳 외에 張山人傳, 蔣生傳이 있고, 燕岩의 金神仙傳, 丁若鏞의 曹神仙傳, 金龜의 蔣生傳을 들 수 있다.²⁾ 燕岩, 茶山, 金龜 등의 實學派들의 神仙傳은 神仙이란 可學이 아니고 虛誕하다 하여 諷刺의 對象으로서 쓰여진 作品인 것이다. 또한 徐花潭傳이 있다고는 하나 아직 그 資料를 구하지 못하여 애석할 따름이다. 中國에서는 晋代의 葛洪을 前後하여 많은 神仙傳이 刊行되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李朝時代 壬・丙 兩亂 이후에 이러한 神仙傳이나 道書方術에 대한 關心이 누그러졌고 許筠을 위시하여 神仙傳의 記錄이 여러 文獻에 散在하나 貧弱하기 이늘데 없다.

文獻說話를 통하여 先人들의 神仙可學에 대한 執念이 들어나고, 실제 人物들의 奇人 異蹟이 葛洪의 神仙傳에 비길만한 것이라고 했으나 傳記의 類型의 小說의 構成이 受容된 作品만이 神仙小說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했다.³⁾ 그러므로 1611년에 쓰여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許筠의 南宮先生傳 張山人傳은 修鍊仙道小說의 범주에서 다루어질 수 있으며 海東異蹟에는 또한 金可記傳이 있으나 이는 沈汾의 續仙傳에서 轉載하였으므로 對象에서 除外될 수밖에 없으며, 實學派의 神仙傳은 修鍊仙道 자체가 지니는 個人主義의 遁世의 思想, 現實의 庶政改革을 위시한 政治, 經濟, 社會, 科學, 倫理 등의 새로운 思潮에 입각한 批判과 諷刺의 對象으로서, 다시 말하면 修鍊仙道小說이 지닌 限界性과 虛와實을 아울러 살펴보기 위하여 本章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이다.⁴⁾

비록 修鍊仙道小說의 범주에는 넣을 수 없으나 文獻說話에는 修鍊仙道에 관한 記錄이 散在해 있다고 했다. 第一章에서 引用한 海東異蹟에는 金可記가 「性沈靜 好道不尚華侈 或服氣鍊形, 誦道德經及 諸仙經」하였고,⁵⁾ 大世・仇漆이 「有方外志하여 迫師訪道名山하여 若凡骨可換神仙可學이면 西遊하겠다 하여 乘舟而不知所之」했다 하고, 朴枝華는 徐花潭에게 배우고 餐松絕粒하였고, 柳亭進은 韓無畏에게 學丹方하고 少好道書吐納嘯嗽하여 入山修鍊性命했다 하고, 郭再祐는 學方術 入山絕穀했다고 했으며, 張漢雄은 40에

2) 李家源 校注: 李朝漢文小說選(普成文化社, 1978年刊)

3) 拙稿: 韓國小說에 나타난 神仙觀(韓國語文論集 2, 韓社大韓國語文研究所, 1982) 참조.

4) 韓國의 實學思想(三省出版社, 1981年刊), pp. 11—pp. 36 李乙浩의 概說 참조.

5) 唐・沈汾・續仙傳・金可記

出家 入智異山 逢異人하여 煉魔法과 修真子書를 읽고 不食三年餘였으며, 申維翰은 學問家採精法修鍊有得했다 하며, 申斗柄은 讀參同契 深於丹學能久不死라 했다.⁶⁾ 鶴山閑言에 鄭鍊은 「閉門修養十年하여 解化」했다 하고, 文有采는 「喜讀 黃庭經하여 解化」했다하고, 金世麻는 「早從異人하여 學修鍊法하여 寒不衣絮하고 飢不茹穀하고 讀黃庭經」했다하고, 南楚도 學修鍊之術했고,⁷⁾ 東野棠輯에 郭思漢은 어려서 異人을 만나 秘訣을 傳授받았다고 했다.

2. 神仙傳과 修鍊仙道

神仙은 可學하다는 확신에서 明師를 만나 入山修鍊하여 仙道를 얻는다고 했다. 第一章과 二章을 통하여 修鍊仙道小說 南宮先生傳은 南宮斗의 스승인 權眞人和 南宮斗의 修鍊仙道과정의 비교적 소상하여 우리 나라 道書 道脈의 참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했다.

南宮斗가 처음 權眞人을 만나 무릎을 꿇고 말하되

「愚魯無他技而老師多藝欲得一方技以行世千里求師而來遲一歲方得褊衣幸進而教之」

愚魯는 아무 재주가 없습니다. 老師께서 多藝하다 하여 한 가지 方術을 배워 行世코자 千里가 멀다 않고 一年을 찾아 하였습니다. 이제 스승님을 뵈게 되었으니 가르쳐 주시면 천만다행이겠습니다 했다. 스승은 方術을 배우는 者 먼저 정신을 가다듬어야 한다고 했다. 나홀을 不睡하여 그 忍耐力을 보고 스승은 魏伯陽의 「參同契」와 黃庭內外玉景經을 주면서 말했다.

「大凡學飛昇者斷除心頭安坐煉精氣神三寶令坎離龍虎交濟成丹是大捷徑而自非上智與宿稟不可猝爲君性朴固忍難以上乘訓之姑先絕粒爲下學」達計也凡人人生稟精於五行故五臟各主五行脾受七氣人之飲啖皆歸於脾胃雖以穀精進健無病而氣引土終至於魄歸乎地古之辟穀者皆爲此也君試先辟穀」

飛昇을 배우는 者는 먼저 雜念을 없애고 精氣神 三寶를 단련한다고 했다. 丹道派의 修鍊은 그 方法이 修養性命에 있다. 그 宗旨은 羽化登仙에 있다. 즉 羽化登仙하기 위하여 性即 理性和 命即 生命을 修養한다는 뜻이다. 이 丹道란 煉心以養性하고 煉身以養命하는 것이다. 權眞人이 南宮斗에게 煉精氣神三寶令坎離龍虎交濟成丹하는 것이 그 지름길이라 했다. 이는 그의 修鍊

6) 以上 海東異蹟.

7) 辛敦復, 鶴山閑言.

仙道가 金丹大道에 있음을 말한다. 이를 修鍊金丹함에는 內丹과 外丹이 있다. 修內丹에서는 修鍊三寶를 重視하고 修外丹에서는 服食을 重視한다. 이 丹道派의 古典的 理論書는 魏伯陽의 參同契와 黃庭經 그리고 抱朴子인 것이다.

「乾坤者，易之門戶，衆卦之父母，坎離匡廓，運轂正軸」⁸⁾

이 參同契는 上下中三篇으로 되어 있고 外服金丹하고 內修陰陽함을 주장했다. 그리하여 長生久視를 求하여 羽化登仙之境에 達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周易參同契正義序에는 萬卷丹書中에 이 參同契가 第一이며 그 글은 옛스럽고 그 뜻은 심오하다고 했다. 易은 곧 變化陰陽이고 天人合法이며 丹이란 곧 火候藥物은 內外兼明하는 것이라 했다.⁹⁾

위에 쓴 參同契 첫 句節에 대하여 吳耀玉은

「關於內修陰陽，屬於修內丹。易曰「一陰一陽之謂道。」據體而言謂之道…據用而言，謂之陰陽變化，其變化不出乾坤範圍之外，乾爲父，坤爲母，二卦相成而生六子(震卦，坎卦，艮卦，巽卦，離卦，兌卦)，八卦由此形成，萬物由此產生，故曰「乾坤者，易之門戶，衆卦之父母」。爲要說明丹道原理，先由宇宙造化說起，追溯鴻蒙之先，一氣未兆，不可道，亦不可名，廓然太虛，無方無體，是謂眞空，即眞空而見妙有此妙有即老子所謂「其中有精」之「精」。將宇宙原理，應用於人身，人身亦有眞精。」¹⁰⁾

內修陰陽과 有關하며 修內丹에 속한다고 했다. 一陰一陽을 易에서 道라 이므로 體로 말하면 道요, 用으로 말하면 陰陽變化이며 이 陰陽變化는 乾坤의 범위 밖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二卦가 相感하여 六子를 낳아 八卦를 이룬다고 했다. 萬物이 이에서 나오니 丹道原理를 설명한 것이라 했다. 宇宙原理와 人身의 原理는 같은 것이므로 坎離匡廓, 轂正運은 곧 丹道原理라 했다. 易에서 坎은 月이요 離는 日이므로 坎離匡廓은 日月之輪을 비유한 것이고, 正軸은 輪轉이므로 日月의 運行이 轂軸과 같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乾坤은 陰陽之體이며 坎離는 陰陽之用이므로 千變萬化가 다 이로 말미암는다는 것이다. 丹道에서 乾坤은 鼎爐가 되고 坎離는 藥物이 되므로 이 四卦가 그 樞紐가 된다고 한다.¹¹⁾

三寶에는 內三寶 外三寶가 있다고 했다. 精, 氣, 神은 內三寶요. 耳, 目, 口는 外三寶라 했다. 參同契 中篇에

8) 周易參同契, 上篇

9) 周易參同契正義(自由出版社, 民國 61 年 刊), p. 1.

10) 吳耀玉, 三教叢論, p. 155.

11) 周易參同契正義(自由出版社, 民國 61 年 刊), pp. 11-12.

「耳，目，口 三寶。閉塞勿發通。真人潛深淵。浮游守規中」¹²⁾

이라 했다. 이는 곧 修身之法을 闡明한 것으로 內三寶 이전의 下手之初에 坐忘에 이르기 위한 단계라 했다. 權真人이 말한 잠념을 없애는 단계이다. 許筠은 閑情錄 卷之十五 攝에서

「精，氣，神爲內三寶 耳目口爲外三寶 常使內三寶不遂物而流外三寶不誘中而擾」

라 했다.

黃庭經은 道家修真養性之聖典이며 修中守中寂中之妙道라 했다.¹³⁾ 雲笈七籤의 解題에 의하면

「黃者中央之色也庭者四方之中也外指事即腦中心中脾中故曰黃庭內者心也景者象也外象論即日月星辰雲霞之象內象論即血肉筋骨藏府之象也心居心存觀一體之象色故曰內景也」¹⁴⁾

黃은 中央之色이요 庭者는 四方之中이라 했다. 指腦中, 心中, 脾中, 故曰 黃庭이라 했다. 이는 一身을 두고 한 말이다. 腦中은 神府요 心中은 氣府, 脾中은 腎中이라고도 하며 精府이다. 그러므로 修黃庭者는 즉 이 三中의 精氣神을 修鍊하는 것이다. 이 黃庭經은 長生術과 관련하여 參同契와 더불어 같은 類의 聖典인 것이다.¹⁵⁾ 權真人은 南宮斗에게 參同契와 黃庭經의 原理에 입각하여 修養性命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權真人은 煉三寶하여 內丹을 이룬 후에 外丹으로서 服食을 권유했다. 服食에는 服藥과 服氣가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앞서서 權真人은 南宮斗에게 辟穀하는 修鍊부터 시켰다. 長生을 위한 服藥과 服氣를 위해서는 腸을 깨끗이 하고 찌꺼기를 없애야 한다고 했다. 抱朴子는 雜應篇에서 「若欲服金丹大藥生不食百許日」이라 했다.¹⁶⁾ 南宮斗는 첫 이레동안은 밥 한 그릇과 죽 한 대접, 그 다음 이레동안은 밥 한 그릇만을, 끝 이레동안은 밥과 죽을 모두 끊고 검은 콩가루 한 홉과 黃精가루 한 홉을 물에 타서 하루 두 번 먹게 했다. 黑豆가루로 세 이레를 지나자 매가 부른 것 같아 밥 생각이 없었다. 이어서 잣나무 잎과 胡麻를 며칠 服用했더니 온몸에 종기가 생기고 고통이 매우 심했다. 百日이

12) 위의 책, p. 91.

13) 黃庭經秘義(自由出版社, 民國 65年 刊), 蕭天石의 三版序言.

14) 道藏精華 第七集, 雲笈七籤, p. 131.

15) 黃庭經秘義, 위의 같음.

16) 抱朴子 雜應篇.

지나니 막지가 시고 새살이 돌아나 평상시처럼 돌아왔다.
權眞人은 기뻐하여

「君眞利器也但息欲念得」

그때는 참으로 출만한 고춧이오. 다음은 모든 욕심을 끊도록 하라고 했다.
三年間讀二訣하니 그 二訣은 參同契와 黃庭經이다. 이 二訣을 三年間 萬番
을 읽으니 修養性이 되어 놀랄 정도로 神과 命通하는 듯하게 됐다는 것이다.
다시 呼吸의 道를 이루니 六年이 경과되어 權眞人은 또 말했다.

「君有道骨法當上昇下此則不失爲喬鬆矣慾念雖動切忍之凡念雖非食色一切妄想俱害
於眞須空諸有靜以鍊之。」

그때는 道骨이라 했다. 일체의 잡념과 망상을 버리고 경지나 空에 이르는데
害로우니 다 털어버리고 더욱 修鍊하라 했다. 南宮와는 다른 방에 혼자 앉
아 閉眼內視의 경지에 이르도록 수련했다. 어느날 입전정에 조그만 오얏 열
매 같은 것이 돌고 햇바닥에 난침이 돌았다고 했다. 權眞人은 이것을 삼키라
고 하면서 「黍珠堪立可運火候」 즉 黍珠가 생기나서 周天火發하겠다고 기뻐
했다. 黍珠란 즉 黍光珠다. 이는 鍊丹修鍊의 과정에서 成丹하여 생기는 지
정알만한 크기의 것이다.¹⁷⁾ 南宮가가 다른 방에서 修鍊한 것은 金液還丹이
다. 金液還丹之術은 一塵不染하고 萬慮俱忘해야 하는 것이다.¹⁸⁾

「鍊之十個月陽身脫體，一身能化爲十萬身，只候十二個月，脫盡天地全數，陰神已
就，渾身脫去八萬四千陰神，步日月無影，入金石無礙入水不濕，入火不焚，刀兵無所
容其刃，鬼神莫能測其機，變化無窮，乃成真人矣，渾身氣候都是眞藥鶴養成鳳，馬食
成龍，人服成仙，此理鬼神亦難明，若不見過做過，這等言語，誰人肯信，夫大藥金丹，
造化工夫，三週九轉，火候細微，攢簇口訣，只在五七之間，把天地都顛倒過，都是自
然而然，……工夫雖一年，火候細微，只在百日之內，動靜凶惡，只在九十日以裡，得內
外而攢簇，頃刻湛然，聖胎成就，誰肯黍朱之珠吞入服中，周天火發，脫胎換骨，…」¹⁹⁾

黍珠가 생기고 火候가 發하면 脫胎換骨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鍊丹
術은 쉽게 成就되는 것이 아니다. 權眞人은 魔軍을 물리치고 道를 이루기를
기원하기 위하여 三方鏡을 벽에 걸고 七星劍을 꽂고서는 呪文과 祝文을 외
우게 했다. 약 六個月의 修鍊이 끝나자 丹田이 차오르고 배꼽 밑에서 金빛

17) 李叔還, 위의 책, p. 690.

18) 金丹大成輯要, 三丰眞人玄譚全集 玄譚, p. 127.

19) 위의 책,

이 渡하는 것 같았다고 했다. 修鍊仙道の 段階은 人仙, 地仙, 天仙이라 했다. 人仙은 「補完氣血復成乾體復得外藥結成內丹」이라 했다. 地仙은 「採鉛煉汞凝而爲砂眞陽外來聖胎脫化」라 했다. 天仙은 「玄珠盡浮懸一黍珠餌之外仙上朝金闕」이라 했다.²⁰⁾ 南宮斗는 懸一黍珠의 段階에서 天仙이 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으나 기쁨을 참지 못하고 더욱 빨리 成道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 黃芽를 곧별없이 사용했기 때문에 上丹되던 泥丸이 나오다 소리질렀다고 했다.

權眞人은 지팡이로 南宮斗의 머리를 치면서 슬프다 그대는 大成을 못하겠구나 하고 탄식했다.

「噫其不成也」「曠世逢人教非不盡而業障未除遂致損敗有之命也吾何力爲」

세상에 뛰어난 사람을 만나 가르치기를 다 했으나 業障을 다 거두지 못해서 실패하고 말았으니 이는 그대의 運命이니 더 이상 네가 어떻게 힘쓰겠는가 했다. 이제 天仙이 되고자하는 마당에 벼빚 밑에서 渡하는 金甕을 스스로 가누지 못하고 성급하게 黃芽를 곧별없이 사용하여 泥丸이 나오르게 하였으니 權眞人의 탄식이 나오게 된 것이다. 비록 神胎, 즉 天仙은 되지 못했으나 地仙은 필만하다고 했다.²¹⁾ 權眞人은 南宮斗에게 그대는 비록 神胎는 이루지 못했으나 地上의 神仙은 필만하니 조금만 더 修養을 쌓는다면 八百살은 살게 될 것이라 했다. 金丹眞傳에는 地仙이 되면 「丹成十月聖胎完, 自由眞人出現」이라 했다.²²⁾ 修仙의 節次가 하순단계가 있으니 築基第一, 得藥第二, 結丹第三의 人仙과 煉己第四, 還丹第五, 溫養第六의 地仙의 境地를 넘어서 脫胎第七, 玄珠第八의 경지인 黍珠가 확고하다 했으나 赴遙池第九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地仙의 경지에 머물게 했다고 했다.

얼저기 抱朴子는 「나는 長生法의 서적을 연구하여 不死의 지팡이를 모아 보았다. 지금까지 읽는 것이 수천권이나 還丹과 金液이 그 骨子」라 했다. 그러나 그 많은 道書를 실제로 실천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했다. 黃帝, 太乙元符 등의 丹法이 있으나 古代 仙人이므로 차를 이루었다고 하나 後人의 作說이거나 丹法 자체가 僞作인 것이라 했다. 南宮先生의 스승인 權眞人은 실제 人物이 아닌 虛構의 人物이란 것은 海東傳道錄이나 安東 權氏의 族譜

20) 金丹眞傳(道藏精華第二集之七), p. 7.

21) 金丹眞傳에는 修仙之節次에 九段階가 있다云 然也. 修仙之節次有九, 一築基, 二得藥, 三結丹, 四煉己, 五還丹, 六溫養, 七脫胎, 八得玄珠, 九赴遙池. 初三節可爲人仙, 中三節可爲地仙, 後三節可爲天仙. 大率三候三關, 明三仙之口訣, 九舉九綱, 行九轉之工夫, 故稱九轉仙丹也.

22) 金丹眞傳, 위의 책, p. 32. 溫養第六.

23) 葛洪, 抱朴子一金丹

를 모야도 알 수 있다. 또한 第一章에서 南宮先生傳의 權真人은 葛洪의 神仙傳에 보이는 趙撝臣이 밝혀졌다. 許筠의 創作力은 실제 人物 아닌 人物을 실제 人物인 것처럼 나타내며 있고 실제 아닌 仙道修鍊은 실제의 仙道修鍊인 것처럼 나타내며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許筠은 훌륭한 小說家이며, 훌륭한 小說家의 虛構가 實이라면 훌륭한 小說家가 創作해 낸 人物의 修鍊仙道 자체가 실제 있었던 것으로 믿어진 데 虛가 아닌 實로 이해가 되는 것이다.

權真人은 黃帝陰符經, 金碧龍虎經, 參同契, 黃庭內外經, 崔公入藥鏡, 胎息心印洞古定觀大通清淨經을 正陽真人→義湘大師→老僧의 경로로 傳授받아 스스로 修鍊하여 11年만에 神胎法을 이루어 上帝의 命에 의하여 東國 三道의 여러 神을 거느리는 所任을 맡고서 이곳에 五百年을 머물고 있다고 했다. 이는 上帝이 遣群仙하여 統治하는 곳이 雉裳山이란 뜻이고, 權真人은 群仙의 하나인 地仙으로 기한이 차서 白玉京으로 올라가야 한다 했으니 神胎法을 이루었다는 것은 天仙이 되었으니 上帝의 命에 의하여 地上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고 이러한 群仙들은 그 아래 여러 神을 거느리고 있다고 했다. 道家의 時空觀에서 볼 때 無極, 太極, 現世의 時間的 三界나 天, 地, 水의 空間的 三界에서 天仙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 無限의 世界에 산다는 것은 그 理想이었던 것이다.²⁴⁾

權真人은 東國 修鍊仙道の 宗旨을 자처하고 있다. 스스로가 神胎法을 이루었고 南宮斗란 弟子를 길렀으나 地仙으로 그쳤음은 한탄했다. 權真人으로부터 道書를 傳授받고 이를 다시 傳해 주고자 雉裳山에서 수십명을 만나 보았지만 어느 사람은 氣가 지나치고 어느 사람은 鈍하고 어느 사람은 忍力이 적고 어느 사람은 因緣이 얇고 어느 사람은 過欲하여 이루지 못했다고 했다.

權真人은 丹田에서 찬란한 金빛이 쏟아졌다고 했다. 丹田은 배꼽아래 세 치라 했으니 男子의 精囊, 女子의 子宮之處이며 修鍊內丹之地이다.

「老君閑居作七言, 解說身形及諸神. 上有黃庭下關元, 後有幽關前命門 呼吸虛間入丹田. 玉池清水濯寬根, 霍能修之可長存 黃庭中人衣朱衣, 關元茂蓋關兩扉. 幽關俠之高巍巍, 丹田之中精氣微.」²⁵⁾

「呼吸虛間入丹田」에 대하여 務成子註에서는 呼之則出, 吸之則入, 呼吸元氣會丹田中이라 했다. 呼吸하여 元氣가 丹田에 모인다고 했다. 丹田中은 臍下三寸의 陰陽戶이며 俗人은 以生子하고 道人은 以生身한다고 했다.²⁶⁾ 「丹

24) 李叔還, 위의 책, p. 12 三界 참조.

25) 黃庭外景經.

26) 道藏精華 第一集九(自由出版社 刊), p. 85.

田之中精氣微」에 대해서는 田者一室也라 했다. 興明堂對라 했다. 明堂은 針穴이다. 精氣微妙하여 難可盡分이므로 故曰微矣라 했다. 金丹修鍊하여 元氣가 丹田에 모였으므로 金빛이 發한 것이다. 또한 權眞人은 여러 神을 다스린다고 했다.

「斗又曰師既治諸神何無一個來謁覲者長老曰吾飛神而受期朝矣又清觀諸神曰可待明年上元也至期長老出龕中衣箱載八霞方山衣服七星日月綉袍係圓青玉束獅帶穿五花文版手持八角玉如意跌坐砌臺上」

權眞人은 東國 三道의 여러 神을 거느리는 所任을 맡았다고 했다. 南宮斗가 그 여러 神의 朝會를 보지 못했다고 함에 權眞人은 나는 神을 혼여지게 했다가 한꺼번에 朝會를 맡는다고 했다. 그것이 正月 대보름이라 했다. 權眞人은 龕室에서 八霞方山을 수놓은 옷, 七星 日月이 새겨진 道袍靑玉을 매고 獅帶로 묶고 다섯 꽃무늬의 신을 신고 八角玉과 如意珠를 쥐고 들에 나와 跌坐하여 朝會를 맡았다고 했다.

正月 十五日, 七月 十五日, 十月 十五日은 三元日로서 道家의 朝禮日이다.²⁷⁾ 이는 上帝에게 올리는 朝禮이다. 權眞人은 東國 三道의 百鬼之帥란 뜻이다. 權眞人의 道冠 道服은 특이하다. 道冠 道服에 대해서는 일정한 記錄이 보이지 않으나 東方朔의 五嶽眞形圖序에 보면

東嶽泰山君：服靑袍載蒼碧七稱之冠佩通陽太平之印乘靑龍
南嶽衡山君：服朱光之袍九丹日精之冠佩夜光天真之印乘赤龍
中嶽嵩高君：服黃素之袍載黃玉太乙之冠佩神宗陽之印乘黃龍
西嶽華山君：服白素之袍載太初九流之冠佩關天通眞之印乘白龍
北嶽恒山君：服玄流之袍載太眞冥靈之冠佩長津梧眞之印乘黑龍
晉城丈人：服朱光之袍載蓋天之冠佩三庭之印乘科車
廬山使者：服朱緋之袍載平華之冠佩三天眞形之印乘科車
霍山南嶽儲君：服靑錦之袍載啓明之冠佩道君之玉策乘科車
薛山儲君：服紫光繡衣載參靈之冠佩朱宮之印乘赤龍之車
諸佐命山君：服朱袍載仙華之冠佩太上眞形之章²⁸⁾

五嶽의 神仙들은 方位에 따라 色相이 다른 道袍를 입고 形相이 다른 冠을 쓰고 구슬이 다른 印章을 佩用하고 色相이 다른 龍을 타고 있다. 後周 때에 容宗이 司馬承禎을 불러 道術을 묻고 霞帔를 주었다는 기록이 있고 太極金

27) 道藏精華 第七集之二, p. 644 朝眞儀第九.

28) 위의 책 pp. 1131—1133 五嶽眞形圖序.

書에 元姓天王者 珠繡霞帔를 입었다는 記錄이 있는데²⁹⁾ 道服에도 至貴한 服裝이 있었을 것이나 明確한 服飾制度는 없는 것 같다. 中華道教의 神相圖에도 五嶽眞形圖序의 服飾과 같은 冠服佩가 보이는데³⁰⁾ 權眞人의 道服은 그 어느 것보다도 다른 것이다. 이는 作者 許筠의 創意的인 表現일 것이다.

南宮씨는 西쪽을 향해 서고 左右에는 童子가 權眞人을 모셨다고 했다. 天上에서는 玉女가 모시나 東國 三道의 百鬼之帥인 權眞人을 모신 것은 童子이고 檜나무에 꽃이 채색된 등불이 걸리고 온 산의 나무들에 꽃등불이 걸린 가운데 형상이 괴이한 곳 짐승들이 나열했다고 했다. 童子童女가 幢을 들고 서있고 수백사람이 엎드리고 천여사람은 뜰에 나열하고 향기 가득하여 고우 소리 울린 가운데 두 사람이 국궁하여 외친다. 朝會하는 순서는 極好林, 廣霞 紅映山 등 東方의 三大神, 蓬囊, 方丈, 圓嶠, 祖洲, 瀛海 등 五洲의 神, 長離, 廣野, 沃且, 玄隴, 地隄, 摠眞, 女几, 東華, 仙源, 琳膏 등 十島의 女官, 天印, 紫蓋, 金馬, 丹陵, 天梁, 南壘, 穆洲 등 七道神將, 丹山, 玄林, 蒼兵, 素泉, 赫野 등 五神이 거느리는 서낭당鬼 등으로 이들이 각각 다른 冠, 帶, 佩를 着用하고 나아가 揖하고 절을 하고 물러갔다. 雲笈七籤卷 26 에는 十洲三島로서 祖洲, 瀛洲, 玄洲, 眞洲, 長洲, 元洲, 流洲, 生洲, 鳳麟聚窟洲의 十洲와 崑崙 方丈 蓬丘의 三島가 記錄되어 있다. 權眞人에게 朝會하는 諸身들은 道書의 地名과 符合되는 것도 있으나. 대부분 虛構의 地名이며 虛構의 神鬼들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의 모두가 地神들로서 社稷, 五嶽, 山林, 河海之神을 地神이라 했다. 權眞人은 또한 廣霞 등 세 眞人을 불러서 말했다.

「卿輩分理三方體上下好生之德黎庶受卿澤久矣今者厄會將至萬姓當罹其殃恩所以救之之樂耶」

東方의 極豪林, 廣霞, 紅映山 세 神人이 三方을 각각 맡아 上帝의 어진 德을 잘 실천하여 백성들이 卿의 恩澤을 입은지 오래라 했다. 이제 厄運이 장차 이르러 百姓들이 災殃에 걸리게 됐은즉 이를 救出할 방도가 있겠는가 했다. 三方, 五洲, 十島, 七道 등의 地域을 맡은 神들의 所司는 各各 다르다. 그러나 水旱災福은 그들의 기본적인 所司인 듯하다. 이에 대하여 三眞人은 탄식하면서

「作者蓬萊治水大監白紫霞元君所未來紅映山言衆眞在九光殿上侍上帝有三島帝君道閭

29) 李叔還, 위의 책, p. 649.

30) 崔德忠, 道教史(山川出版社, 1977年刊), 內表紙 그림 참조.

浮提三韓之民機巧姦騙誑惑暴殄不惜福不畏天不孝不忠嫚神黷鬼故借旬林洞狸面大魔捲赤土之兵往剿之連兵七年國幸不亡三方之民十集五六以警之臣等聞之亦皆心而大運所關何敢容力乎長老亦嗟吁不已」

여지께 蓬萊山 治水大監이 紫霞眞君이 있는 곳에서 이르렀는데 紅映山 眞人이 이끄기를 모든 眞人이 九光殿上에 上帝를 모시고 있다고 했다. 또한 그 자리에 있던 三島帝君이 閻浮提의 三韓之民이 간특하여 남을 잘 죽이고, 幅을 아끼지 않으며,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고, 父母에 효도 않고, 忠誠도 하지 않으면서 鬼神을 모욕하므로 旬林洞에서 살고 있는 이리, 假面을 쓴 魔鬼를 잠깐 빌어 戰爭이 계속된지 7年이나 다행히 나라가 亡하지 않았으나 三方의 백성들이 十分에 五六이 모여 警僞를 합니다. 저희들은 이 일을 두고 모두 마음이 떨리나 이 모두 운수 소관이므로 어찌 감히 힘을 쓸 수 있겠음니까 했다. 七年 戰爭은 壬辰倭亂을 이름이다. 主體仙道, 僞仙道小説 등 대부분의 神仙小説이 壬丙兩亂 이후의 混亂期에 民心이 흉흉한 背景에서 쓰여진 作品이고 어지러운 民心과 紀綱을 바로잡는 眞人의 出現을 渴望하는 民間信仰과 結付된 仙道思想이 主題가 되어 있듯이 權眞人和 眞人 사이의 對話 속에도 이러한 특징이 드러나 있다.

南宮斗의 修鍊仙道는 神仙可學의 입장이었고, 權眞人의 得道는 비록 不可解한 점은 있으나, 記錄된 神仙傳을 바탕으로 한 天仙을 描寫하고 있다. 作者 許筠의 作家意識은 東國 道流의 叢인 權眞人의 使鬼神하는 方術의 描寫에서는 神仙可學의 信實의 바탕을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權眞人의 使鬼神하는 場面은 天仙인 權眞人이 三方의 眞人을 비롯한 여러 神鬼를 거느리는 總帥임을 誇示할뿐 아니라 그 모두가 東國 道流의 叢인 權眞人의 支配下에 있다는 發想이 主體仙道思想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 또한 七年間의 兵禍도 三韓之民이 저지른 功過에 의한 應報이며, 세 眞人의 대답에서 東洋人의 運命論의 一端을 볼 수 있다. 또한 鬼神들의 描寫에 있어서 東方의 極豪林, 廣霞, 紅映山은 빨간 金冠에 붉은 道袍, 옥띠에다 笏을 곳곳이 잡고, 구름이 수놓인 신, 칼~ 노리개를 차고 있었다고 했다. 허리는 길쭉하고 얼굴은 희랍고 눈매는 밝고 빼어났다고 했다. 五神은 자기 地方色을 나타내는 道袍를 입고 갓이나 패물은 三方의 神과 같으며, 그들 역시 허리가 길고 얼굴이 빼어났다고 했다. 十島 女官들은 꽃놓아 金襴巾에 붉은 구슬로 만든 步搖를 꽂고, 金風의 무늬를 놓은 하얀 저고리에 파란 비단의 긴 치마를 입고 있다고 했다. 특히 仙女의 치마 저고리를 보아 東國 道流에 어울리는 服飾으로 描寫하고자 한 것이라 하겠다. 또한 이들의 神의 모습을 보면 山海經의 영

향을 입고 있는 듯한데 七道 司命神將들은 사자의 얼굴에 범의 풍도, 붉은 머리털, 노오란 눈썹, 용의 수염이 있고, 五大 神將들은 모습이 七道司命神將과 같되 그들은 百餘名이 되는 靈官을 거느렸는데 혹은 몸이 짧고 누추하기도 하고 또는 길고 굵기도 하고 또는 조촐하고 말쑥하기도 하고 또는 팔 여섯과 눈 넷이 있다고 했다. 山海經에는 南西北東中山과 海外南西北東 및 海內南西北東, 大荒東南西北經이 있는데 각기 그 人, 神, 鳥獸들의 形狀이 다른 가운데 山의 神鬼들의 모습이 人面而馬身, 人面而牛身四足(南山經), 人面而龍身(西山經), 人面蛇身(地), 人身而羊角(東山經), 人面而鳥身(中山經), 南方祝融獸身人面(海外南經) 등과 같이 怪物 神鬼의 描寫가 많다. 山海經에는 또한 西王母其狀如人豹尾라 했다.

「又西三百五十里曰玉山是西王母所居也西王母其狀如人豹尾虎齒而善嘯蓬髮載勝是司天之厲及五殘」³¹⁾

天之厲는 災厲, 즉 질병이고 五殘은 五刑殘殺이다. 질병과 형벌을 받은 鬼神인 西王母는 豹尾虎齒에다 蓬髮이니 무서움과 위엄의 형상으로 묘사된 것이다.

神仙可學의 立場은 修鍊仙道 자체를 信實에 바탕을 둔다고 했다. 南宮斗의 仙道修鍊은 道書의 修鍊法에 바탕을 두되 그 核心이 內丹에 있다. 內丹과 外丹의 차이는 煉三寶와 採取外藥에 있다고 했다. 鉛汞하여 採取外藥하는 外丹의 功은 눈으로 確認되어야 하므로 服食하여 得道했다는 傳說이 있을 處 修鍊으로 實證된 바가 없다. 여기에 修鍊仙道 자체의 虛와 實이 있는 것이다. 南宮斗의 修鍊仙道가 內丹에 置重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이며 內丹에 의한 修鍊得道가 永生은 아니라해도 延命은 가능하고 修性은 됴므로 전혀 虛誕한 것은 아니며, 仙道에서 말하는 天仙, 神仙, 地仙, 人仙, 鬼仙의 等級으로 이를 변명할 여지는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權眞人の 경우 僞仙道の 要素가 加味되어 삼화의 구실을 하고 있으며 召神하고 使役鬼神하는 方術 또한 虛誕한 것이므로 「南宮先生傳」은 事實과 虛構, 神仙可學과 不可學에 의한 虛와 實이 複合되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複合의인 構成 가운데 作者 許筠의 修鍊仙道에 대한 확신과 떠런은 權眞人の 입을 통하여 더욱 現實的으로 力說된다.

「你既緣薄不合久于此其下山長髮髯黃精拜北斗不殺姪盜不茹葷狗牛肉不陰害人則此地土仙行脩之不息亦可上昇矣黃庭參同道家上乘誦持不懈而度人經乃老君傳道之書玉樞經

31) 山海經箋疏(台灣中華書局 民國 60年 刊), p. 19.

乃雷府諸神所尊佩之則鬼畏神欽此於修心之要唯不欺爲上凡人一念之善惡鬼神布列於左右皆先知之上帝降臨孔邈作一事輒錄之於斗宮報應之效捷於影響昧者褻之以爲茫昧不足畏彼烏知蒼蒼之上有真宰者操其柄耶你忍心雖剛而欲念不除倘或不慎則墜異趣曠劫受苦可無愼哉」

南宮斗 자네는 이미 因緣이 다하여 이곳에 더 머물러 있을 수 없으니 下山하여 머리를 기르고 黃精을 먹고 北斗에 절하며 음탕한 자나 도둑이라든가 殺人치 말며 개고기와 소고기를 먹지 말며 남을 음해치 말면 곧 地上仙이라 했다. 王・內 兩亂 이후에 民間信仰 속에는 民衆道敎의 經典이라 할 勸善書가 많이 流行되었다. 太上感應篇이 그것이다. 太上感應篇의 著者가 葛洪이라는 說도 있으나 믿을 수 없다. 이는 儒・佛・道가 融合되던 時期에 나타났다는 것이 定說처럼 되어 있다.³²⁾ 雲笈七籤卷 38 에도 說戒라 하여 勸善懲惡의 內容이 記錄되어 있는데 善惡의 勸이나 禁戒의 內容은 유사하다.

「說七戒」

第一戒者不得違戾父母師長反逆不孝
第二戒者不得殺生屠宰割截物命
第三戒者不得叛逆君王謀害家國
第四戒者不得淫亂骨肉姑姨姊妹及佻婦女
第五戒者不得毀謗道法輕泄經文
第六戒者不得汗漫靜壇單衣裸露
第七戒者不得欺凌孤貧奪人財物
第八戒者不得裸露三光祇棄老病
第九戒者不得耽酒任性兩舌惡口
第十戒者不得兇豪自任自作威利」³³⁾

妙林經二十七戒

不得盜竊人物	不得罵詈高聲	不得蓄毒藥人	不得耽酒迷狂	不得妄取人財
不得毀謗誘人	不得投書諧善	不得殺生淫祀	不得妄言綺語	不得兩舌邪佞
不得輕慢經敎	不得燒野山林	不得因恨殺人	不得評人長短	不得毀謗聖文
不得評論師長	不得貪嗔癡狠	不得好言人惡	不得恃威凌物	不得貪惜財賄
不得慢老欺人	不得毀善自譽	不得貪姪好色	不得言人陰事	不得呪咀瀆心
不得自驕我慢	不得好殺物命			

32) 崔德忠, 道敎史 第六章 p. 361 勸善書의 流行 참조.

33) 道藏精華 第七集之一, p. 530.

34) 위의 책, p. 541.

이는 共히 修道者의 지켜야 할 戒行이다. 修道者는 修善하여야 한다는 思想은 仙道觀의 戒行이 아니고 儒·佛과 더불어 習合된 것이다. 民間信仰이며 民衆道教의 勸善書인 太上感應篇에서도 明義, 鑒察, 積善, 善報, 諸惡, 上·下, 惡報, 悔過, 力行 등을 논하고 있다.³⁵⁾

머리를 기르고 黃精을 먹으라 했으니 俗人과 더불어 살고 脾胃를 도와 元氣를 회복하라는 뜻이고, 北斗에 절하라 했으니 三台·北斗·三尸·竈神 等 司命 消災解厄의 神을 빌으며 하물이 없어 長生延命한다는 仙道思想의 現實的인 實踐倫理觀과 직결된다. 음탕한者나 도둑이라도 죽이지 말고 남을 陰害치 말라 했으니 仙道의 일반 戒行과도 유관하며 특히 南宮斗의 과거 塵緣과 業障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이다. 修性함에는 남을 죽이지 않음이 으뜸이고 사람이 作罪하면 記錄에 남겨 그 應報의 효과가 매우 빠르다고 했다. 黃庭經, 參同契는 道家의 上乘이니 誦持不懈하라 했고 度人經은 老君의 道를 傳하는 글이므로 읽을 것이요 玉樞經은 玉府諸神이 존중하는 글이니 佩服하면 鬼神이 두려워하고 존중한다고 했다.

이러한 스승의 가르침은 현실적인 民間信仰과 民衆道教와 거리가 멀지 않으며 南宮斗의, 스승의 가르침에 대한 실천 또한 충실하여 黃精과 술잎을 먹었으므로 몸이 더욱 건강해지고, 나이 여든이 되었으나 17,8歲의 젊은이 같은 童顏이고, 보고 듣는 精力이 조금도 쇠하지 않고 모든 풍채가 여원 鶴과 같으며 가끔 며칠을 먹지 않고 줄리지 않고 參同契와 黃庭經 외기에 쉬지 않았다고 했다. 南宮斗의 修鍊仙道觀은 그의 스승보다 더욱 현실적이다.

「母陰行陰母曰無鬼神行善積德絕慾煉念則上仙可立致鸞鶴不日下迎矣」

남몰래 험악한 일 하지말며 鬼神이 없다고 하지말며 行善積德하고 絕慾하며 煉念하면 곧 上仙이 될 수 있고 不日에 鸞鶴이 내려와 맞이할 것이라 했다. 南宮斗가 下山하여 俗人과 같이 생활하고 음식 거처를 平人과 같이 함에 피이하게 여긴 許筠이 그 虛實을 문의하니 南宮斗는

「吾初擬飛昇高欲速不果成吾師既許以地上仙勤脩則八百歲可期矣近日山中頗苦閑寂下就人寰則無一個親知到處年少輩輕其老醜了無人間興味人之欲久親者原爲樂事而怕然無樂吾何用久爲以是不禁烟火抱子弄孫以度餘年乘化歸盡以順天所賦也君有仙才道骨力行不替眞仙去君何遠哉吾師嘗許我以忍不能忍而至是忍之一字仙家妙訣君亦慎持勿墜也」

나는 처음에 飛昇하여 天仙이 되고자 했으나 欲速하여 이루지 못하고 나

35) 拙稿 主體仙道小説의 樣相 참고.

의 스승이 地上仙으로 머물기를 許하여 무지런히 담으면 八百歲를 누릴 것이라 했다. 그러나 요즘 山들이 너무적막하여 俗世로 돌아왔으나 親知하나 없고 到處에 年少輩들이 내 놓고 추함을 밀치하므로 人間의 興味조차 없어졌다고 했다. 八百歲를 누리야 할 地上仙이 百歲로 期必코자 하는 것은 人間의 興味를 잃었기 때문이고, 人間의 興味를 잃었기 때문에 오래 살 필요가 없어져서 俗世의 음식과 康緣을 마다하지 않는다고 했다. 스스로 運命을 개척하고 延年益壽코자 하여 仙道를 修鍊한 南宮斗로서 現實의인 人間으로 돌아와 抱子弄孫하다가 平凡한 人間처럼 죽었다는 것은 仙道修鍊이 可學이면서 虛와 實이 複合되어 있음을 自認하고 또한 깨달았음을 의미한다. 許筠에게 또한 이르기론 그때는 仙才道骨이므로 이 道를 힘써 行하여 쉬지 않는다면 이 世上의 眞仙이 멀지 않다고 했다. 스스로 알면서도 무지런히 仙道를 닦아 八百歲 地仙이 되기를 포기했다는 것은 一見 矛盾같이 보인다. 이는 作家 許筠이 作品의 素材를 對하는 態度, 즉 語調가 實이면서 虛이고 虛이면서 實인 때문이다. 이는 主人公 南宮斗를 實在人物인 것처럼 표현하면서도 實在人物의 行路에다 虛構의인 要素를 더 많이 添加하고 있고, 仙道修鍊을 可學한 것이라 믿으면서도 실제로 修鍊得道한 人物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南宮斗의 金丹大道에 의한 修鍊과 權眞人의 僞仙道의 要素를 複合하여 表現한 것이다. 이러한 作家 자신의 南宮先生傳을 처리하는 態度는 그 末尾에 붙은 自評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許子曰傳言東人尙佛不尙道自羅達解數十載未聞有一人得道仙去者其果徵哉然以余所親南宮先生言之可異焉先生所師者果何人而得於相師者未必的然可信所說亦未必盡然要之影響之間也但以先生年貌看之非眞能得道者耶那能八十而若是康健耶此又不可決以爲無是事也噫其奇哉我國僻在海外之遐邇之士如美門安期而巖石間乃有如此異人累千百
 年傳先生一得遇之孰謂偏壤而無其人耶達道則仙味道則凡傳所言者與耳食奚殊使先生母望其速成卒收爐鼎之效則彼美門安期亦何難拍肩而等夷之唯其不忍以敗垂成之功嗚呼惜哉」

傳해오는 말에 東國人은 尙佛은 했으나 尙道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新羅로부터 朝鮮에 이르기까지 數千年이 흘렀으나 得道하여 神仙이 되었다는 사람을 한 사람도 듣지 못했다. 과연 그 말이 옳다고도 했다. 그러나 내가 본 南宮先生으로 말하면 정말 이상하다. 그의 스승은 과연 어떤 사람이며 그가 만났다는 相師者도 만드지 않을 것은 못된다고 했다. 그의 仙道修鍊에 관한 이야기도 만드지 다 옳다고 믿기는 어렵다고 했다. 要컨데 影響之間이라 했다.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었으리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를 虛하다고만 보

기 어려운 것은 그의 나이에 비한 얼굴의 젊음이라 했다. 나이 여든인데도 이렇게 건강하다는 것은 得道者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했다. 이것이 實의 증거이다. 이로 보아 결코 實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中國에는 저 羨門이나 安期와 같은 神仙이 있었는데 궁벽한 海外의 우리 나라의 마귀틈에 이러한 賢人이 있는데도 어찌 偏壤이라서 神仙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 했다. 이는 主體性과도 유관하지만 修鍊仙道에 對한 信實인 것이다.

羨門은 秦나라 때의 古仙으로 羨門子高가 本名이다. 安期生 또한 秦始皇 때 사람으로 蓬萊山에 隱居했다는 傳說의인 人物이다. 秦始皇이 그와 더불어 三日三夜를 仙道에 대해 이야기했으나 留書하기를 後千年求我於蓬萊했다 하니 秦始皇의 名처럼을 보아 仙道는 不可學한 人物로 낙인 찍었던 것이다.³⁶⁾ 葛洪에 의하면 安期生은 金丹의 黃金液 半량을 먹고 神仙이 되었으나 地上에 머물렀다 하고 天上에 오르지 않고 地上에 머문 것은 그의 趣向이라 했다.³⁷⁾ 許筠은 만일 南宮先生이 너무 지나치게 서물지 않고 마침내 爐鼎之效를 거두었다면 저 羨門子高나 安期生과 어깨를 겨루고 말았을 터인데 끝내 참지 못하고 거의 아득한 功을 무너뜨렸으니 참으로 안타깝다고 했다. 許筠의 안타까움은 仙道修鍊의 失敗에 있으므로 修鍊仙道는 實이요 그 失敗함이 많은 것이다.

韓無畏의 海東傳道錄이 趙汝籍의 靑鶴集과 거의 비슷한 時期에 書寫되었다면 南宮先生傳의 修鍊過程이 丹書口訣이나 丹家別旨口訣 그리고 鄭北窓(1506~1544)의 龍虎訣을 修鍊之書로 參考하였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南宮先生的 修鍊過程을 보면,

- ① 制經魔之法：丹書口訣 11章
- ② 靜 養：丹家別旨口訣 其一
- ③ 調 息 法：龍虎訣，閉氣，胎息
- ④ 火 候 之 法：丹家別旨口訣 其三 龍虎訣，周天火候³⁸⁾

이와 같이 그 연관을 밝힐 수 있다. 이러한 內丹修鍊에 대해서는 作者 許筠이 道書批讀과 그 해박한 知識으로도 表現이 可能하지마는 以上の 연관으로 보아 韓無畏나 鄭北窓의 口訣을 참고로 했음도 부인하지 못한다. 李圭景은 그의 五洲衍文長箋散稿에서 道家修鍊內丹의 七返九還之說을 權克中의 參同契註釋과 鄭北窓의 丹家要訣을 보고서야 비로소 확히 알게 됐다고 했다. 결국 許筠의 南宮先生傳의 修鍊仙道는 金液還丹之學이 그 根本이라 하겠다.

36) 歷代眞仙體道通鑑上, pp. 273—275 참조.

37) 葛洪, 抱朴子, 對俗, p. 5.

38) 海東傳道錄, 서울大叢藏本.

張山人傳은 內丹 外丹의 性命雙修가 아니고 方術의 하나인 使鬼神하는 方術의 이야기다. 張漢雄은 三代재 湯幣의 業을 가졌고 아버지는 잊혀진 商陸 즉 자리공 뿌리를 먹어 能視鬼而役使之했다 한다. 葛洪의 從祖 葛玄은 삼주 뿌리(龍)를 장복하여 治病하고 能乘虎使鬼했다고 했다.³⁹⁾

李圭景은 五洲衍文에서 이 張山人傳의 商陸에 대하여 辨證하기를

「洪長洲萬宗海東異蹟張山人漢雄傳山人父營僑商陸能視鬼而驅使之年九十八如四十許人出家去莫知所終云后見方技家書有成仙服商陸法也其法曰正月二日九月十日十一月十二日取商陸根三十斤淨水洗塵切長二寸許勿令中風絹囊盛盛懸屋北六十日陰乾爲末以方寸匕首服之早先食服十日見鬼六十日驅鬼搬運隨意八十日見千里百日乘風履雲久服成仙」⁴⁰⁾

方技家の 服食에 商陸을 먹는 方法이 記錄되어 있다고 했다. 正月二日 九月十日, 十月十二일에 服食하되 商陸 뿌리를 물에 씻어 잘리고 가루를 만들어 服十日하면 鬼를 볼 수 있게 되고 服六十日하면 뜻대로 鬼神을 부리고 八十日이면 千里를 내다보고 百日이면 바람을 타고 구름을 밟으며 오레로록 服食하면 成仙한다고 했다. 그의 아버지는 아흔 여덟이었으나 박혼쯤 되 고 있다고 했다. 그가 出家하여 莫知所終했는데 그 때 남기고 간 朋이 玉樞經과 運化玄樞라 했다 張山人은 이 두卷의 道書를 수만번 읽고 使鬼神하며 治病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玉樞經과 運化玄樞는 道經目錄에 실려 있지 않다. 僞書 或은 僞撰이라 일컬어진다. 玉樞經은 福을 받고 災殃을 피는 盲人의 經文이다. 또한 治病을 위해 邪鬼를 쫓는 讀經의 經文이다.

「九天之上에 唯我天尊이 發雷聲而齊物하시며 設寶經而渡生하시며 降魔折鬼하시며 除妖滅孽하시고 種因設緣하시 證過去而報來世하시며 彰善行而加福하시 懲惡業而示苦하시 使誠者로 消災하시 修者로 覺道하시니 在生靈이 勿染塵欲하시 誠深修鍊하시 打破諸疑하시 滌盡白塵하시 一躍火器면 萬象이 同歸一源하시 金銀銅鐵은 融於一金하시 豆米黍粟은 香連一味하시 天上人間이 是吾腹中이시 億變萬化가 不移于掌하시 三十六天이 羅列念中하시니 此經大旨가 庶不差毫釐於斯矣나라.」⁴¹⁾

玉樞經이 僞書, 僞撰이란 是非는 盲人讀經 때문인 것 같다. 또한 勸善書와 연관되면서 仙道와 道教와는 먼 거리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張山人의 仙道修鍊이 玉樞經에 根本을 두었거나 商陸의 服食에 있다고 하면 이는 南宮

39) 葛洪, 神仙傳, 葛玄.

40)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p. 373.

41) 詳密註解玉樞寶經 崔秉斗의 序文.

도의 仙道修鍊과는 軌를 달리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仙道修鍊의 性命雙修가 精氣神三寶의 修鍊과 內丹外丹에 있으며 方技之術은 그 末術이라고 했다. 張山人과 같은 奇人·異人의 修鍊은 方術之人의 修鍊으로 보아 修鍊仙道の 범주에서 다루어 큰 무리는 아니라는 정도로 이해된 것이다. 降魔斥鬼, 除妖滅孽을 九天之上의 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의 雷聲과 寶經에 의하여 齊物되고 渡生된다고 했다. 彰善行而加福하고 警惡罪而示苦함은 太上感應篇과도 유사하며 朝鮮朝後期の 儒·佛·道 複合의 변질된 道敎와 脈을 같이하는 것이다.

그러나 張山人은 40이 되어 入智異山하여 異人을 만나 煉魔法를 받고 修真十書을 三年餘 不食하면서 空菴에서 읽었다고 했다. 修真十書은 金丹大道의 諸篇을 모은 冊으로 그 글본이 호랑이를 마음대로 꾸짖거나 鬼神을 마음대로 부리는 要諦는 아니다. 張山人은 山에서 18년을 머문 뒤 서울 興仁門 밖에서 살았다고 했다. 그는 呪文을 외워 妖物을 물리치고 죽은 물고기와 꿩을 藥을 먹여 살리고 占象의 誤謬를 지적하고 壬亂時에 倭將의 칼을 맞아 劍解했다고 했다. 피는 白膏와 같고 시체는 곳곳이 얇아 쓰러지지 않았으며 잡자기 雷聲이 최고 비가 쏟아져 倭賊이 怯이나서 도망했다고 했다. 또한 그의 꿈에서는 舍利 일흔 두알이 나왔는데 크기는 아가위만하고 검푸른 색깔이라 했다. 張山人의 修鍊仙道는 道書를 통하여 鬼神을 부리고 商陸을 服食하여 鬼神을 보고 부르며 玉樞經을 통하여 鬼神을 부르며 治病하고, 煉魔法를 통하여 妖物을 물리치고 죽은 짐승을 살리는 등의 方術에 能通하며 劍解했다는 등은 修鍊仙道の 범주에 드는 小說이나. 修鍊仙道の 性命雙修와는 거리가 먼 虛誕의 修鍊仙道이며 朝鮮朝後期の 변질된 道敎와 관련된 作品이라 하겠다. 그의 舍利를 塔에 고이 모셨다거나 그가 占을 비롯 온갖 風水圖讖을 알았다거나 하는 것, 玉樞經을 만번이나 읽었다는 것 등은 이문 뒷받침하는 것이며 許筠이 그를 劍解한 仙人으로 描寫한 것은 修鍊仙道の 小說범주에 넣어 무방함을 뜻한다.

3. 批判과 諷刺로서의 神仙傳

修鍊仙道小說이 南宮先生傳에서는 仙道修鍊 자체의 虛實이 복합하여 나타나고, 張山人傳에서는 服食과 道書를 통한 鬼神부리는 方術이 虛誕으로 一貫되었음에 비하여 實學派들의 神仙傳은 修鍊仙道 자체의 批判과 諷刺로 나타난다. 그러나 修鍊仙道小說의 虛實은 主體仙道나 僞仙道の 非現實의인 時空間과는 다르고, 있었던 人物에 대한 實記形式이라는데 그 特徵이 있다.

實學派의 神仙傳으로는 朴趾源의 金神仙傳, 丁若鏞의 曹神仙傳, 金鑪의 蔣生傳이 있는데 이들 作品의 末尾에 보이는 作者의 籍을 보면

「或曰仙者山人也又曰入山爲仙也又慨然輕舉之意也辟穀者未必仙也其鬱鬱不得志者也」⁴²⁾

「道家以清心寡慾爲飛昇之本乃曹神仙多慾猶能不老如此豈世降俗淪神仙猶不能免俗耶」⁴³⁾

「余嘗誦稗史得蔣生事甚悉然心固疑之及見洪萬宗所撰海東異蹟所謂蔣都令者其人歟當是京師皆呼生爲蔣都令云嗚呼生其古劍仙者流耶方生之始也爲口技乞憐諸娼妓問何其鄙也及其挾髮結客殺偷兒如探囊中丸何其終也藏身幻化浮游嶺海之表又何其靈且奇也蓋生抱奇才遭人倫之變故爲自苦自放以解其悲愁鬱結而已也然不能減格于父不能成家道類然與禽獸同羣無足稱也然聞其事未及見人也及讀屠園平涼子傳益瞿然矣夫世固有若蔣生者」⁴⁴⁾

燕岩은 仙者가 山人이며 入山하니 仙이 되고 僊이란 僊僊하여 輕舉한다는 뜻이라 했다. 또한 神仙이란 반드시 辟穀하여 修鍊한 者만을 이르지 아니고 現實에서 疎外된 者로서 뜻을 얻지 못한 不遇한 사람이라 했다. 現實에서 疎外된 者로서 入山하여 修道하는 者가 반드시 辟穀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면서도 金神仙은 不食하므로 사람들은 그가 잦아움을 싫어하지 않았으며 겨울이 되어도 솜옷을 입지 않고 여름에도 부채를 흔들지 않으므로 남들은 그를 神仙이라 한다고 했다. 辟穀하고 方技하는 金神仙을 만나고자 했으나 그에 대한 行蹟과 所聞만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릴 뿐 한번도 만나보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므로 燕岩은 辟穀이니 方技니 하는 뜬 소문은 들었으나 確證하지 못하고 그가 오로지 울울한 뜻을 얻지 못한 者일 것이라 했다.

茶山은 한걸음 더 나아가 神仙이란 虛誕하다는 燕岩의 견해에서 道家에서 말하는 清心寡慾이 修鍊飛昇하는 根本이라 했는데 世上이 末世가 되니 凡俗이 변하여 오늘날의 神仙은 俗態를 벗어나지 못했다 하여 비꼬우고 있다. 거간꾼 曹神仙은 冊 읽기를 좋아하면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판아먹으니 장사꾼에 不過하고 전후 이야기를 들어보니 100歲가 넘었을 것이니 神仙修鍊이 아니라도 100歲 넘어 長生하니 修鍊昇界의 根本조차 흔들린 現世의 俗態를 지탄하고 있는 것이다.

金鑪의 蔣生傳은 洪萬宗의 海東異蹟에서 素材를 얻었으며 그 밖에도 稗史에서 蔣生 蔣道令에 대한 記錄을 읽었노라 했다. 海東異蹟 以外の 稗史란

42) 朴趾源, 金神仙傳.

43) 丁若鏞, 曹神仙傳.

44) 金鑪, 蔣生傳.

許筠의 握所覆沍藥이다. 許筠과 洪萬宗의 蔣生傳은 그 原本이 許筠의 作이므로 別差가 없으나 金鑰의 경우 약간의 부연이 있다. 許筠은 蔣生과 친한 洪世禧와 접했을 때 유별나게 가까이 交友하였고 서로 諧謔을 주고 받으며 親했다고 했다. 그가 지닌 技藝를 다 보았고 神妙함을 알았으며 그가 옛날 말하는 劍仙이 아닌가 했다. 蔣生의 技藝는 술, 노리, 피리, 봉소, 새소리 흉내, 飛越, 그리고 未來事의 豫言 등이다. 그가 了解하였다고 했으니 許筠은 蔣生의 친구인 洪世禧와 親했으며 洪世禧가 劍仙類다 했을 것으로 보인다. 金鑰는 아아 蔣生은 정말 劍仙의 무리가 아니겠는가 했다. 許筠이 蔣生을 두고 劍仙이라 한 것이 아니고 洪世禧를 두고 劍仙의 무리다 했을 가능성이 있다. 蔣生은 칼을 쓰지도 않았고 칼에 맞아 죽은 자도 아니다. 또한 蔣生이 일찌기 장가들었다가 아내가 죽고, 서울 靑坡 藥舖에 살던 때가 昭敦王 己丑年이라 했으니 1589年이다. 그때는 許筠이 나면 해이므로 가장 친한 친구란 洪世禧가 될 것이다. 또한 壬辰 4月 초하룻날 죽었다던 蔣生이 洪世禧 앞에 나타났다고 했으니 1592年이다. 그러므로 許筠이 친한 사람은 蔣生이 아니라 洪世禧이다. 壬辰 4月에 洪世禧 앞에 나타난 蔣生이

「君果謂死乎吾今向海東蓬丘山中矣且曰君今年不合死願君臨陣須上山勿下水歲在西母向南行雖有公幹毋登城言訖而去倏忽不見」

그때는 과연 내가 죽은 줄 알았는가. 나는 지금 海東 蓬萊山으로 가는 길이다. 자네는 음해 죽지 않을테니 결쟁이 나가는 上山으로 가고 下水로는 가지 말며, 西年에 南으로 가지 말고 公務로 南으로 가더라도 성터엔 오르지 말라고 했다. 말을 마치고는 홀연히 사라졌다고 했다. 許筠의 蔣生傳에는 海東 木覓에 갔다고 했다. 金鑰는 蔣生의 奇異한 行蹟이 人倫의 變을 만나 일부러 咎를 떠나 억울한 원한을 풀었다고 했다. 그러나 그의 情정이 아버지에게 이르지 못하여 家道를 이루지 못하고 頽然與禽獸同羣했으니 無是稱也라 했다.

實學派의 神仙傳에서는 神仙可學이나 修鍊仙道가 아니고 竅外되고 得志하지 못한 蔣生과 같은 人物의 異蹟을 증험하거나 뜬소문이나 行蹟이 실상을 울울 하고 뜻을 얻지 못한 人物들에 대한 遜世僞學을 비판한 것이며 神仙의 根本이 清心寡慾이나 末世의 反語的인 人物 曹神仙의 諷刺等으로 이른바 修鍊仙道小說의 限界와 虛誕을 강조하게 된 것이 이들 作品의 主題이다.

4. 結 論

仙道는 人間의 꿈을 實現코자 하는 理想의 世界라 했다. 延年益壽하여 長生久視하는 것은 人間의 實現可能한 꿈이라면 天仙이 되어 天上界의 玉皇上帝를 받들고 永生不滅하는 것은 虛構의인 理想世界이며 童話의 世界라고 했다. 이러한 시로 虛實이 相反하면서도 相對의인 仙道思想은 統時的으로 보아 神仙可學과 神仙不可學의 두 對立이 생기고 이러한 對立된 思想의 小說로 虛構化되는 과정에서 그 虛實이 複合되었음은 당연한 위치이다.

許筠의 南宮先生傳에서는 金丹大道의 神胎法으로 天仙이 되었으나 그 因緣과 東國道流의 叢으로서 그 後繼者를 양성하기 위하여 地上의 庶務를 補眞人인 南宮斗를 得道修鍊시켰으나 그의 業障과 忍耐心 때문에 失敗하여 안타까워 했다. 南宮斗의 修鍊은 점차적 많은 修行으로 忍耐心을 보였고 黃庭經 參同契를 다면 읽어서 妙諦를 득하고자 했다. 우선 煉精, 氣, 神 三寶하여 內丹 修鍊에 힘쓰고 脈氣煉形에 힘썼으나 그 여러 과정은 오늘날의 科學으로도 立證되는 방법법이 적지않다. 金丹大道의 道書에 입각한 修鍊의 過程이 어렵고 증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는 하나 作者 許筠은 南宮斗의 仙道修鍊을 神仙可學의 信實에서 묘사되었고 비록 神胎에는 失敗했으나 南宮斗의 업을 통하여 더욱 現實의인 仙道觀을 피력하고 있다. 許筠이 仙道修鍊에 대한 虛實은 문의하니 清心寡慾의 根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失敗했을까이지 仙道修鍊 자체는 확신하고 있었다. 이러한 仙道觀은 南宮斗의 仙道觀인 동시에 許筠 자신의 仙道觀이었다. 南宮先生傳은 이러한 仙道修鍊에 對한 確信과 權眞人의 僞仙道的要素 및 당시의 民間信仰 및 後代道敎의 要素가 複合되어 있는 作品인 것이다.

張山人傳의 修鍊仙道는 神仙可學의 修鍊仙道가 아니라고 했다. 性命雙修의 修鍊仙道가 아니고 朝鮮朝後期の 변질된 道敎와 習合된 虛誕의 修鍊仙道라 했다. 南宮斗의 金丹大道가 神仙可學과 信實에 바탕을 두었다면 張山人傳은 能使鬼神하는 方術之道이다. 南陸을 長服하고 玉樞經을 읽고 符佩에 의하여 使鬼神하고 治病하고 消災除禍한다는 것은 民間信仰과 변질된 後世道敎와의 複合이다.

實學派의 神仙傳은 修鍊仙道 자체에 대한 批判과 諷刺과 했다. 燕岩은 辟穀하고 方技하는 金神仙의 소문은 들었으나 確認하지 못하고 이들을 다만 幽玄한 뜻을 얻지 못한 方外之人이라 했다. 茶山은 世上이 末世가 됨에 清心寡慾을 根本으로 하여 修鍊하는 神仙이 俗態를 벗어나지 못한 例를 冊 거

간군 曹神仙을 통하여 諷刺했으며 蔣生傳을 통하여 金龜는 奇人·異人の 行蹟이 遯世 僞學이었음을 말하고 있다.

要컨대 修鍊仙道小說에서는 神仙可學에 對한 信實과 努力 및 現實에 對한 不滿과 局外者로서의 立場이 仙道修鍊에 對한 강한 執念으로 나타나고 그러한 主題가 成功的으로 表出된 것이 修鍊仙道小說의 實像이며, 失敗와 挫折에서 奇人과 異人の 行蹟으로 끝난 人物들에 對한 批判과 諷刺로 表出된 것이 修鍊仙道小說의 虛像이라 할 것이다.